[글로벌 금융시장]

브렉시트의 전망과 시사점

2018. 06. 30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심현정

Ⅰ 서론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탈퇴는 유럽 통합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브렉시트가 향후 가져올 파장과 충격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브렉시트라는 역사적 사건이 커다란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 사건은 한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다음에서는 브렉시트의 개요와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브렉시트가 가져온 파장과 세계 국제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브렉시트 (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다. 결과는 탈퇴 51.9% 즉 52% 잔류 48.1%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에 이별을 고하는 선택의 순간이었다.

2.브렉시트의 선택 배경과 원인

브렉시트가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자면 우선 유럽연합과 영국 보수당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3년 영국은 아일랜드와 덴마크와 함께 EU의 전신인 유럽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가입했다.
당시 집권 보수당의 에드워드 히스 총리는 이를 기념하며 “영국은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커다란 교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하는 데 효율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연설을 했다.
이어 영국 정부는 당시 9개 회원국을 둔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에 대해서 1975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임을 확인받게 되었다.
영국이 유럽 통합에 대해서 미온적인 아웃사이더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유럽경제공동체에 창단인 1957년보다 16년 늦은 1973년에 가입한 것에 기인한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에 ‘유럽 합중국’의 창설을 제안한 사람이 영국 의회역사상 60번째 총리인 영국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라는 사실에서 본다면 영국은 유럽통합의 기원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적 비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럽통합의 주류에서 벗어나 주변 회원국으로 비춰지는 이유가 있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설립될 당시 영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창설될 때도 가입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영국은 태도를 바꾸어 유럽경제공동체에 두 번이나 가입신청을 했지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영국이 '유럽적인 이상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물러난 후 3차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신청을 통해 1973년에 유럽 통합의 조류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뒤 늦게 유럽통합에 합류할 수 있었던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라는 브렉시트의 이유는 보수당이 유럽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더욱 압박한 국내 정치 변수가 생긴 영국독립당인데 EU로부터의 영국의 탈퇴를 우선 정치 강령으로 내세운 독립당의 기세를 보수당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EU탈퇴 이유는 간략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이민자를 줄이자는 것과 영국이 EU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그저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할 뿐 잔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데서 찬성 진영의 탈퇴 이유는 더 가중되었던 것이다.

브렉시트를 지지한 사람들은 연령,학력,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더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사회적 약자층이 많은 지역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영국의 많은 대학 도시들은 '잔류'에 표를 행사했다. 뉴캐슬, 요크, 노팅엄, 노리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등 친 EU 성향의 대학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데이비드 런 시만 교수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들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지적 속물들의 통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반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려 한다"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에 영향을 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유럽 난민 사태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한 경제적 난민들이 있었기에 유럽 난민 사태는 2015년에 등장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유럽 난민 문제의 핵심은 시리아 내전에 의한 난민 문제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뭄으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거주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도움은 커녕 이들을 탄압하고 이로 인한 적대감으로 이들이 반군이 되었고 내전으로 격화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인근 국가인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피난 가면서 확산 되였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적극적 난민 수용 국가가 있는 반면 폴란드, 체코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난민 수용에 부정적

인 국가군이다. 식민 제국주의를 경험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국가군이 있다. 특히 영국의 노동자들은 저가의 인건비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폴란드 출신 노동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3.브렉시트의 파장

영국은 다른 EU 회원국과는 달리 파운드화라는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가 결정한 법률이나 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민은 불만이 높아졌으며 특히 2012년 그리스, 스페인 등 디폴트 위기에 빠진 다른 EU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닥친 EU의 재정위기로 영국은 재정 분담금을 떠안았고 악감정도 증폭되었다. 여기에 EU 정책에 따라 난민도 대거 받아들이면서 실업률이 증가해 EU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브랙시트 열풍이 높아져 그 파장이 당장 영국의 국제 신용도 평가에 반영되었다.

브렉시트 투표 직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빌리는 대출 이자율과 직결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파운드 평가절하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수입 단가가 상승했고, 영국인의 해외 관광 비용은 더 비싸졌다. 반면 영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오히려 파운드 평가절하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다. 여행 분석업체인 포워드키즈에 따르면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영국을 목적지로 한 항공편 예약이 7.1%나 증가했다고 한다.

건설 부문도 브렉시트의 파장이 체감되는 곳이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런던과 북잉글랜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런던 지역 공항 시설 확충, 등 4.0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의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게다가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의 건설 지수가 46에서 45.9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9년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
또한 브랙시트가 가져오는 파장 중에 하나가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EU 시민들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영국인에게 있을 변화에 관한 것이다.
EU에서 근무하는 영국 출신 직원들의 위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이뿐만 아니라 영국인은 EU 회원국으로서 누려온 EU 기관에 향후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영국 우수 인력의 국제기구 취업 기회가 대폭 줄어드는 영향도 함께 있다.

브렉시트가 가져온 정치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집권 보수당의 리더십 교체다. 보수당 내의 유럽 반대 진영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카드였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캐머런 총리는 선거 다음날 사임했다.

보수당 내 경선을 통해 7월 13일 테리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총리직을 승계했다.
영국 의회 역사상 마거릿 대처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인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영국이 EU와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앞세워 강경한 협상가로서 자신을 부각시켰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명시된 수순을 따른다. EU를 탈퇴하는 정식 절차도 리스본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EU를 떠나기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우선 EU에 탈퇴 의사를 밝혀야 하고, 이 통보 후 탈되 희망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간에 탈퇴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탈퇴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공식적으로 EU를 떠나게 된다. 만일 합의를 보지 못하면 통보일로부터 2년 후에 EU를 탈퇴하게 된다.

4.세계 국제 시장에 미칠 영향.

EU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무역량은 20%정도 된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 EU가 무너지면 중국과 일본이 어려워지는 연쇄적인 영향을 줄게 뻔하다. 당연히 수출량이 줄고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며 정리해고는 늘어날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침체되고 금 등의 가치가 올라간다. 더욱이 미국금리가 인상되면 모든나라 돈이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나라에 풀어졌던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엄청 힘들게 된다. 또한 세계적 위기까지 도래한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중국의 대응 전력 가운데 1순위는 현물 시장에서 나타난다.
중국이 그 전보다 더 모든 원자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 다랜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 된 철광석은 260억 톤으로 우리나라의 330년치 사용량이다. 세계적인 불황과 저금리 그리고 브렉시트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화폐보다는 실물 쪽으로 돈이 몰리는 데 다가, 향후 경기가 풀려 생산을 늘릴 때에 대비해 중국이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는 이런 알루미늄을 비롯해 석유와 철광석 등 무려 240조 원어치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이렇게 의존도가 크다보니 중국의 투기로 가격이 급등하면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은행들이 요동치고 금값이 올라가는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이때에 그 영향으로 회복세에 있던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처방안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한국-EU 간 FTA를 한국과 영국 간 FTA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 입장으로는 다행하게도 중국과 일본이 EU와 FTA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우선 대상에 있어 동아시아에서 차별받는 경우는 벌어지지 않는다.

브렉시트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경색 우려로 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 원화와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파운드의 약세로 한국에 투자된 영국계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2016년 5월 말 지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 규모는 434조 원이다. 이 중 영국계 자금은 8.4%인 36조 4,000억 원으로서 172조 원이 넘는 미국계 자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 동안 단기 투자 성향을 보여온 영국계 자금의 이탈은 1조 원 규모에서 그치겠지만 향후 2년간 외환시장의 움직

임과 맞물려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영국과의 교역비중이 특별히 큰 것도 아니고 영국이 EU를 떠나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통상 측면에서도 당장 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영국의 탈퇴가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 이탈을 부추기고 유럽연합의 동요가 장기화되는 경우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다. 브렉시트가 당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낙관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향후 2,3년 동안 벌어질 추가탈퇴 논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유럽불안과 실물수요 위축에 장기적으로 영향 받을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신양극체제에서 외교적으로 미국과 EU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 인도,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우호를 증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급변하는 국제 역학 구도 속에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와 재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조명진. 2016.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한국경제신문 한경BP

박희원. 2018. Weekly KDB Report

한국금융연구원. 2016. 브렉시트가 영국 및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비피기술거래. 2016. 브렉시트 = Brexit : 본질, 위기, 유망산업 보고서